

학교폭력 피해 응답 2.9% ‘역대 최대’… 6년 새 3배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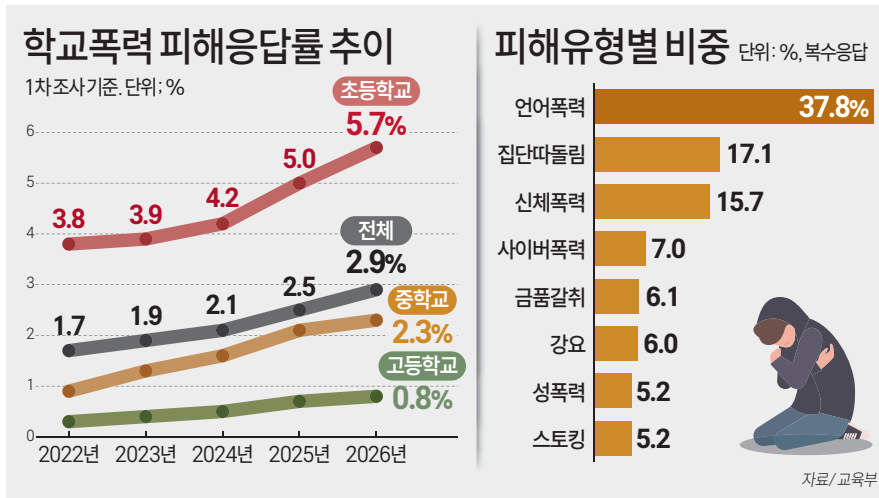
교육부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경험 학생 9만1600명 달해
관계회복 프로그램 강화 박차
아차라 등 신종 폭력 엄정 대응

전국 초·중·고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020년 0.9%에서 올해 2.9%로 6년 만에 3배 넘게 높아졌다. 피해를 봤다고 답한 학생은 9만1600명에 달했으며, 특히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5.7%로 가장 높았다.

◆ 학폭 피해 6년 새 3배…초등생 최고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과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9%로 지난해 2.5%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피해 응답률은 2020년 0.9%에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2025년 2.5%에 이어 올해 2.9%까지 높아졌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5.7% ▲중학교 2.3% ▲고등학교 0.8%로



지난해보다 각각 0.7%p, 0.2%p, 0.1%p 상승했다. 피해 응답자 수는 초등학교생 5만 6500명, 중학생 2만6200명, 고등학생 8600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0% ▲금품갈취 6.1%, 강요 6.0%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각각 1.2%p, 0.8%p 감소한

반면 신체폭력은 1.1%p, 집단따돌림은 0.7%p 증가했다.

◆ 쉬는·점심시간 피해 절반 넘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고등학생 피해 가운데 ▲언어폭력 39.9% ▲집단따돌림 19.7% ▲사이버폭력 9.1% ▲성폭력 7.4%였다. 반면 신체폭력 비중은 초등학교가 17.5%로 중학교 13.7%, 고등학교

10.8%보다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학교 안이 69.6%를 차지했다. 교실 안이 28.2%로 가장 많았고 ▲복도·계단 16.4% ▲운동장·체육관·강당 등 9.1%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쉬는 시간이 29.8%, 점심시간이 21.2%로 두 시간대를 합하면 절반을 넘었다.

피해·목격 응답률이 증가한 것과 달리 가해 응답률은 감소했다. 올해 가해 응답률은 0.8%로 지난해 1.1%보다 0.3%p 낮아졌다. 초등학교는 2.4%에서 1.6%, 중학교는 0.9%에서 0.7%로 떨어졌고 고등학교는 0.1%로 지난해와 같았다.

반면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6.1%에서 올해 6.7%로 0.6%p 상승했다. 초등학교 11.0%, 중학교 6.8%, 고등학교 2.6%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보다 높아졌다. 전체 목격 응답률은 2020년 2.28%에서 올해 6.7%까지 상승했다.

◆ 관계회복 강화…신종폭력엔 엄격

교육부는 초기·경미한 갈등의 경우 심의나 사법적 절차에 앞서 교육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관계회복을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핵심 절차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아차라’이나 스파링 등 신종 학교폭력과 심각한 가해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신종 폭력 ‘아차라’ 경보를 발령했으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예방교육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제 갈등 대처 역량을 키우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종 학교폭력 양상에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韓-싱가포르, 글로벌 금융 인재 키운다

윈드폴리-스프링플로우 ‘맞손’
싱가포르서 교육·인턴십 제공

한국 기업과 싱가포르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금융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인턴십·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글로벌 금융 기관의 실무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금융인으로서의 소양도 기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인 ‘윈드폴리(Windfally)’와 싱가포르 현지 기업인 ‘스프링플로우(Springflow)’는 지난 8일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공동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윈드폴리는 인공지능(AI)으로 개인의 진로와 진학 경로, 합격 예측까지 정확하게 설계하는 초개인화 1:1 성장관리 솔루션 ‘오디바이스(Audivice)’를 운영하고 있다. 오디바이스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고등학생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대



이병희 윈드폴리 대표(왼쪽)와 지희석 스프링플로우 이사가 지난 8일 서울 을지로4가 윈드폴리 본사에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공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학생까지, 상담 분야별로 최적의 멘토를 1대1로 매칭하고 데이터로 성장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교육 플랫폼이다.

스프링플로우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돼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인가를 받은 금융그룹으로, 현지 금융 기관을 연계해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높은 신뢰도는 물론, 현지 기업들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에 없던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현지에서 글로벌 은행·증권사 등 금융 기관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과, 현지 기업들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겨울방학 기간, 소규모 그룹을 중심으로 베타 테스트를 거쳐, 2027년 여름 공식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만 16세 이상 고등학생과, 진로를 탐색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간은 1~2주부터 최장 30일까지 다양화 할 계획이다.

고등학생에게는 글로벌 금융 교육과 다양한 현지 체험 기회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현지 금융 그룹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는 수수료 등과 함께 개인별 교육·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하남시 홍보대사에 비운세 안무가 ‘카니’

임기 2028년 9월까지

세계적인 안무가 카니 디아바테 안(Kany Diabate Ahn)이 하남시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비운세 월드투어와 2026FIFA 월드컵 공식 주제가 안무 제작 등에 참여한 카니 씨가 하남의 K-컬처와 도시 브랜드를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됐다.

하남시는 지난 7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9월 월례회의에서 카니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8년 9월까지 2년이다.

카니 씨는 프랑스 출신 세네갈계 안무가로, 마이클 잭슨 트리뷰트 쇼와 비운세의 ‘르네상스 월드투어’ 등에 참여하며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 왔다.

국내에서는 블랙핑크 지수와 VIVIZ(비비지), 샤이니 키 등 K-팝 아티스트들의 안무 디렉팅에도 참여했다. 방송과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면



(왼쪽부터)이현재 시장과 세계적인 댄서이자 안무가인 카니 씨가 홍보대사 위촉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남시

서 국내 팬들에게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하남시가 카니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데에는 그의 글로벌 활동뿐 아니라 실제 하남시민이라는 지역적 연결성도 작용했다.

카니 씨는 하남 위례에 거주하면서 남한산성 일대 산책로와 녹지공간 등을 이용하는 등 하남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하남(경기)=유진재 기자 yujin@

경기도 앵커 자체평가 결과 67개교에 공유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앵커 성과·혁신 포럼’ 열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 앵커센터가 8일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경기도 앵커 성과·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Connect & Leap : 성과를 잇다, 지역혁신을 열다’를 주제로, 1차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경기지역 수행대학

67개교와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태형 경기도의회 미래과학 협력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경기앵커센터, 도내 앵커 수행대학 사업단장과 실무자, 시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인 ‘앵커’는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를 개편한 사업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과 미래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춰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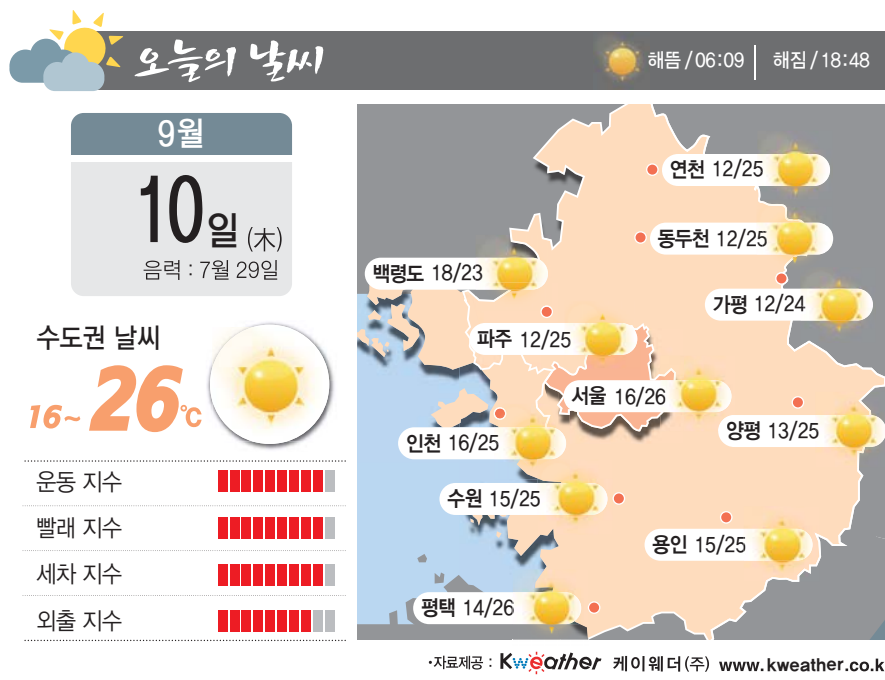
롭게 구성됐다.

행사는 ▲1차년도 성과발표 ▲경기앵커센터 하반기 추진계획 발표 ▲유형별 우수사례 발표 ▲시그니처 과제 고도화를 위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앵커센터는 자체평가 분석을 토대로 4대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애로사항과 개선방향을 짚으며 이를 반영한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5개 대학이 각 대학의 추진 성과와 현장 경험을 발표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메트로 한줄뉴스



▲또 시작된 보복전…美 이란 유조선 공격에 이란 “요르단 기지 타격” /사진 뉴시스

▲루비오 남미순방 시작, 콜롬비아에서 친 트럼프 신임 대통령 지지 강조

▲유엔사무총장, 이 군에 주말 27명 죽고 63명 부상한 레바논공격 중지 요구

▲中상무장관, 핀란드에 “중·EU 무역 마찰 적절히 해결해야”

▲EU, 세르비아 ‘발칸 도살자’ 장례 지원 맹폭… “EU 가입 불확실성 야기”

▲中 8월 승용차 판매 양극화…내수 23.7%↓·수출 77.5%↑